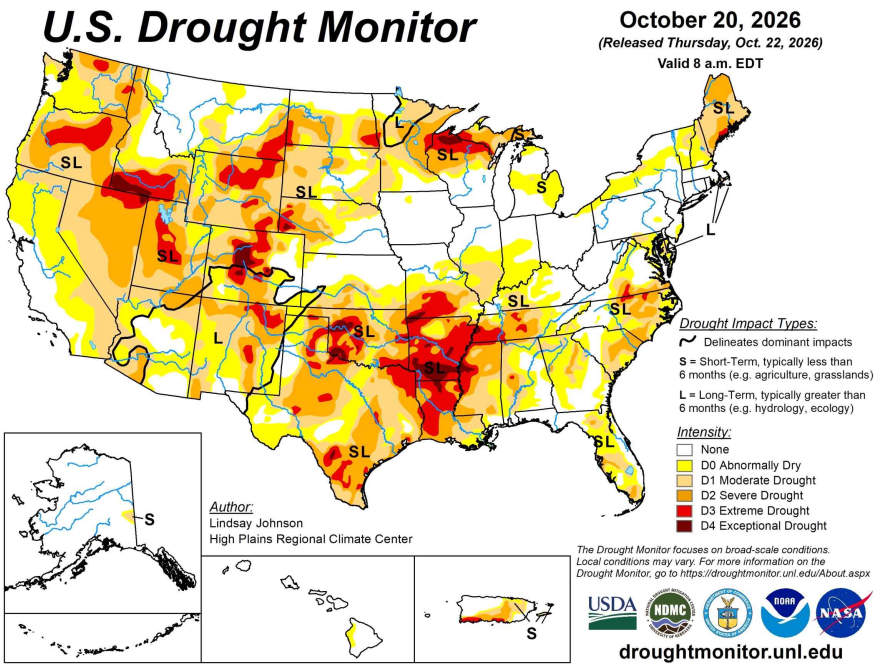
KREI 국제곡물 주간보고 Weekly Report
2026.10.27.
http://grains.krei.re.kr/

10월 2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3, No. 43)

□ 미국 기후 현황(2026/10/18-2026/10/24)

주 중반부터 후반까지 서부에서 이어진 폭풍성 날씨는 포코너스 지역의 광범위한 홍수로 절정에 달했으며, 산후안강 일부 구간을 따라, 또한 뉴멕시코주 코치티댐 상류의 리오그란데강에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위가 관측되었다. 또한 10월 23일 뉴멕시코주 아비키우댐 상류의 리오차마강에서는 역대 최고 수위가 기록되었다. 상당한 규모의 국지적 홍수는 유타 남동부와 콜로라도 남서부까지 확대되었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서부 지역의 강수가 가을철 농작업을 지연시켰지만, 표토의 수분 비축량을 늘리고 가뭄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방목지와 목초지의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 서부의 일부 고지대에는 습설이 내렸다. 주 후반에 이르자 강수대가 고평원 쪽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눈은 동쪽으로 멀리 몬태나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관측되었다. 그 밖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한 주 동안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여름작물 수확과 겨울밀 파종을 촉진했으며, 농작업이 끝난 곳에서는 농장 유지·관리 작업에도 도움이 되었다. 대체로 맑은 날씨와 기온 상승 추세가 나타난 중서부의 기상 여건은 옥수수와 대두 수확에 특히 이상적이었다. 대서양 연안을 따라 소나기와 돌풍이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었으며, 아열대폭풍 조세핀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형성된 뒤 뉴잉글랜드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진로를 틀었다. 대서양 연안 중부와 남부 주들, 그리고 앨라배마 남부에서는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5~10° F 낮았다. 그러나 미국 중부에서는 대평원과 중서부 북부의 평균기온이 대체로 평년보다 5~15° F 높았으며, 이러한 고온은 서쪽으로 로키산맥 일부 지역까지 이어졌다. 북서부에는 주 후반에 서늘한 날씨가 찾아왔다.



□ 농업 현황 요약(2026/10/19-2026/10/25)

미국의 주요 농업 지역에서는 기상 여건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북부와 중부 대평원, 미시시피강 상류 및 중류 계곡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우세했으며,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4~12° F 높았다. 반면, 대서양 연안 주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이거나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관측되었으며, 일부 지점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6~8° F 낮았다. 한편, 옥수수 벨트, 미시시피 델타 지역, 남동부를 포함한 미국 중부와 동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적은 강수가 우세했으며, 이는 농작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옥수수와 대두 수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건조한 날씨는 여러 주에서 토양 수분의 수준이 감소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반면, 서부는 평년보다 많은 강수를 겪었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주간 강수량이 평년의 두 배를 넘었다.

□ 세계 기후 현황(2026/10/18-2026/10/24)

■ 유럽:

관측 기간 동안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폭풍성 날씨가 우세했다. 10월 18~19일에는 느리게 이동하는 상층 저기압과 깊게 유입된 아열대 수증기대가 결합하면서 스페인 동부 해안의 발렌시아 인근에 많은 비가 내리거나 폭우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재앙적인 홍수가 발생했다. 강우량은 여러 지역에서 50~250mm로 보고되었으며, 올리바에서는 최고 578.4mm를 기록했다. 이 기상계는 10월 20일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프랑스 남동부에 150~300mm의 비를 내렸고, 지중해 연안의 마르세유 인근에서는 최대 640.9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연간 강수량에 해당하는 비가 내렸다. 이 기상계가 계속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주간 강수량은 이탈리아 북서부에서 300mm를 넘었고,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100mm를 초과하여 내렸으며 최고 157.0mm를 기록했다. 서부 발칸반도에서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크로아티아 서부에서는 최대 150.9mm를 기록했다. 한편, 두 개의 강한 폭풍계가 북유럽에 영향을 미쳤으며, 두 번째 폭풍계는 10월 23일 프랑스 북부와 저지대 국가들을 강타할 당시 위성과 레이더 영상에서 열대성 특성을 나타냈다. 그 결과 영국과 프랑스 북부에서 독일 북부와 스칸디나비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25~100mm,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상의 비가 내렸다. 또한, 유럽 악천후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일으키는 강풍이 광범위하게 보고되었다. 더 동쪽에서는 후행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유럽 동부 3분의 1 지역에 10~40mm의 약한 비에서 보통 수준의 소나기가 내렸지만, 헝가리 동부에서 남쪽으로 루마니아 서부와 세르비아 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10mm 미만으로 더 적었다. 그 결과 유럽 대륙의 주요 겨울작물 재배 지역 대부분에서 토양 수분 공급 상태가 충분하거나 매우 풍부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베리아반도 서부와 북부, 그리고 그리스와 불가리아 남부에서도,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해 계절성 농작업에 유리했다. 서유럽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2~5° C 낮았던 반면, 유럽 대륙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3° C 높았다.

*프랑스와 헝가리의 지상 기상관측소 자료는 누락되었거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어,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레이더 및 위성 자료를 활용했다.



■ 구소련(서부):

주 초 이 지역 서부에 비가 내린 반면, 더 동쪽 지역에서는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나타났다. 흑해 서부의 저기압이 관측 기간 초반 북서쪽으로 이동한 뒤 소멸하면서,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중부 및 서부, 벨라루스 남부의 넓은 지역에 10~95mm의 보통에서 많은 비가 내렸다. 실제로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이 폭풍계는 크림반도 남부에 100~200mm,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상의 매우 많은 비를 내렸으며, 이로 인해 국지적인 홍수가 발생했다. 반대로 카스피해 북쪽에 자리 잡은 강한 블로킹 고기압의 영향으로 러시아 서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3~6° C 높은 건조하고 매우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러시아 최남부 지역에는 5~20mm의 약한 비에서 보통 수준의 소나기가 스쳐 지나갔다. 실제로 주 초 구름과 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 인근 지역에서도 평년보다 4~7° C 높은 이례적인 고온이 우세했다. 그 결과 토양 수분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겨울작물의 활착이 진전되었다. 토양 수분 상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이 지역 서부 절반에서는 양호에서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러시아 중서부에서는 극도로 부족했다.

■ 호주:

호주 서부와 남부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난 반면, 북동부 재배 지역에서는 보통에서 많은 비가 내렸다. 서호주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겨울작물의 성숙, 건조, 조기 수확을 촉진했으며, 5~45mm의 보통에서 많은 소나기가 주로 주의 주요 농경지 서쪽에 내렸다. 마찬가지로 남호주, 빅토리아 서부, 뉴사우스웨일스 남부에서는 주 대부분 기간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져 등숙 중인 겨울작물에 유리했지만, 남호주의 마운트로프티산맥 동쪽 농경지와 빅토리아 북서부에서 남동쪽으로 남부 해안에 이르는 지역에는 5~25mm의 약한 비에서 보통 수준의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렸다. 한편, 퀸즐랜드 남동부에 걸쳐 정체된 전선의 영향으로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 25~100mm,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상의 보통에서 많은 비가 광범위하게 내렸으며, 이 비는 면화와 수수의 활착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증가시켰지만 성숙 중인 겨울밀과 보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호주 서부와 중동부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나타난 반면, 에어반도에서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스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3~6° C 높은 이례적인 고온이 나타났다. 주 후반에는 호주 남동부의 기온이 일시적으로 30~35° C까지 치솟아 여름과 같은 더위가 나타난 뒤, 다시 훨씬 서늘한 공기가 유입되었다.

■ 동아시아:

(자료없음)

■ 아르헨티나:

중부 생산 지역에서 북쪽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으며, 대부분 지점의 강수량은 25mm 미만이었다. 반면 북동부에서는 보통에서 많은 소나기가 내려 최대 120mm에 달했다. 남부 재배 지역에는 총 10~50mm의 약한 비에서 보통 수준의 소나기가 내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3° C 낮은 상태가 이어졌으며, 낮 최고기온은 대체로 20° C대 초반에서 30° C대 초반을 기록했다. 다만 강수량이 매우 적었던 먼 북단 일부 지역에서는 30° C대 중반에서 40° C대 초반에 달했다. 농업부는 포장 여건이 허락하는 지역에서 옥수수 파종이 진행되었으며, 조기 파종된 포장에서는 출현 상태가 양호했다고 보고했다. 해바라기 파종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분 조건 아래 진전되었지만, 더 건조한 지역에 늦게 파종된 일부 포장에서는 생육이 고르지 않게 나타났다. 10월 22일 기준으로 벼 파종은 67%, 해바라기와 옥수수 파종은 각각 49%와 35% 완료되었다.

■ 브라질: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동부와 남부 재배 지역에는 10~75mm의 약한 비에서 보통 수준의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렸을 뿐이었다. 반면 100mm가 넘는 가장 많은 비는 먼 북서부 지역에 국한되었다. 내륙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 수준이거나 평년보다 높았으며, 낮 최고기온이 광범위하게 30° C대를 기록해 농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했지만, 건조한 경향을 보여 온 지역에서는 수분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켰다. 남부 지역은 다소 서늘했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2° C 낮았고 낮 최고기온은 20° C대 중반에서 후반을 기록했다. 파라나주 정부는 앞서 내린 과도한 비로 대두 파종이 지연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날씨가 더 건조해지면서 농작업과 파종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토양 수분과 잦은 강우로 대두 파종이 지연되었으며, 고르지 못한 포장 여건으로 벼 파종이 늦어지고 출현도 느리고 불균일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옥수수 파종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일조 여건이 개선된 기간에는 영양생장도 향상되었다.